東亞日報
夕刊
九月二十四日(火)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黃泳模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和協工作全然失敗

一切를 理事會에 返戾

"伊首相代案은 審議키不能"

五人委員會失敗로 終了

【제네바卄三日發聯合】 五人委員會는 討議 僅僅數分間으로서 散會하엿다 各委員은 伊政府의要求에基한 和協案의修正은 實際的으로 不可能함을 認定하고 委員會의 和協工作은 이에完全히 失敗로 終하엿다고 解釋된다

【제네바卄三日發電通】 五國委員會는 別項과如히 伊에對한 理事會에 報告하기로 決定하엿는데 聯合바에依하면 委員會는 무쏠리니伊首相의 代案을 檢討한結果 이러한 案은 聯盟規約의 機構內에서는 到底히 審議할수없는것이라함에 意見이 一致된것이라한다

콤뮤니케發表

【제네바二十三日發聯合】 五人委員會終了後 左의 콤뮤니케가 發表되엇다 五人委員은 二十三日午前十一時 마다리아가 委員長司會下에 開會하고 委員會의 和協案에 對한 伊國政府의 [illegible] 審議하고 且伊政府의 [illegible] 理事會에 報告하기로 決定하[illegible]

理事會今明間開會

特別委員會任命?

第十五條에依한行動을勸告

詩府에悲觀空氣濃厚

【제네바卄三日發聯合】 五人委員會는 理事會에 對하야 委員會의 和協失敗內容의 報告를 하려고 [illegible] 時間에 [illegible]

聯盟事務局도 콤뮤니케公表

【제네바二十三日發電通】 聯盟事務局은 二十三日午後 五國委員會의 和協工作放棄를 公示하엿다

代表가披瀝한意見

必不伊政府見解

【제네바廿三日發電通】 五國委員會가 和協工作에서 全然失敗키로 決定하엿으므로 理事會는 二十四日이나 二十五日에 開會하고 [illegible] 規約第十五條에 [illegible]

알代表마 議長과 會見

움찍도안는 무首相의 訓令으로

【제네바廿三日發聯合】 伊代表알이 씨는 무쏠리니首相의 訓令에 基하야 二十三日夜 五人委員會議長 마다리아가氏와 會見하고 和協試案에 對하야 二十二日同代表가 披瀝한 意見은 伊政府의 正式見解라고 解釋할것이 아니라고 通告하엿다(寫眞은 무首相)

무首相、英大使와

極秘裡重要會談

別個의和協方途開拓?

【로마二十三日發聯合】 로마駐劄英大使드럼몬드氏는 二十三日夕刻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畸刻 무쏠리니首相을 訪問하고 [illegible]

秋季皇靈祭의 御儀

【東京電話電通】 二十四日은 秋季皇靈祭當日 이므로 宮中에서는 天皇陛下 御親祭下에 皇靈殿 神殿에 御祭典을 擧行하옵시엇다

伊에兩軍總動員

伊國은豫行運動

에國은內人까지軍務에

事實이없다

代案提出의

伊外務省聲明

聯盟이制裁를躊躇하면

英國은實力行動

四日重大閣議開催

伊太利

佛外相首相 伊眞意聽取

五人委員會參席

英內閣首腦部 臨時閣議

制裁問題協議

現內閣、學說問題로

政治的危局에直面

軍部兩相의態度强硬으로

極緊張될卄五日의閣議

英聯合艦隊

海軍演習

土希羅三國

風實에對應하야

福岡縣議結果

國民黨

休日市場氣配

▲期米 ▲株式 ▲綿絲

橫說竪說

今日夕刊四面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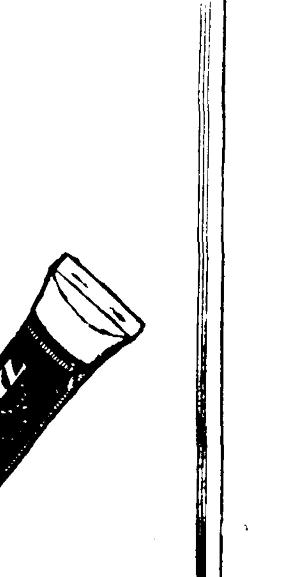
運動競技로인한 打撲、筋痛 回復에

스포-츠는 인생의 꽃이다. 점차제일이 되는 우리 조선도 세계경기전에 일홈을 울니게되엿다.

○○學校優勝

十五錢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東京……大阪 田邊商店



第十三回 本社主催 全朝鮮女子庭球戰開幕

銀線上에 蓮步生風
百花撩亂의 妙技
飛去來의 玉球에 滿場이 歡呼
爽凉、訓練院頭에 人山

[illegible]

女子庭球畫報
【一】莊嚴한入場式【二】金權花女實校長始球式【三】白熱한競技【四】平和鳩날리기【五】宣誓文朗讀

秋高天朗의 是日
嚠喨한 奏樂으로 入場
蒼空엔 平和의 鳩、地上엔 熱狂의 觀衆
明眸에 鬪志타는 八十選手

[illegible]

東方 女子의 武勇을 빛내라
會長宋鎭禹氏開會辭

선수입장식에서 대회장 송진우(宋鎭禹)씨로부터 개회사가 있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illegible]

宣誓

저의들은 하늘높고 바람맑은 이 仲秋의 佳節을 擇하야 열린 東亞日報社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女子庭球大會에 出場케 되옴을 無限한 光榮으로 여기옵는 同時에 아울러 朝鮮女子庭球界의 向上發展을 爲하야 奮鬪하올것을 [illegible]

昭和十年九月二十四日
出場選手代表 [illegible]
第十三回全朝鮮女子庭球大會 會長 宋鎭禹 貴下

第二回戰經過

好壽敦○ 女高×

[illegible]

同德 梨花

[illegible]

進明 高女

[illegible]

權花× 高女○

[illegible]

一回戰

[illegible]

淑明× 高女○

[illegible]

今曉仁川에 大火
損害二十萬圓

【인천지국전화】 [illegible]

新秋、鬱蒼한 松林속에 展開된 陸上의 豪華版
◇오전중 투포환에 신기록이 續出◇
延專主催、本社後援中等陸上

[illegible]

競技經過
百米豫選

[illegible]

八百米豫選

[illegible]

二百米豫選

[illegible]

投砲丸에 新記錄
黃正白、張兩君이

[illegible]

投砲丸決勝

[illegible]

百米準決勝

[illegible]

◇延專主催陸上競技入場式

玄海灘에 또 颱風
關釜間聯絡船缺航
風勢는 昨年颱風에 못지아니하
今年들어 廿三回缺航

【下關電話】 [illegible]

自動車에 人夫가 卽死

[illegible]

療養院建築
寄附金許可도나와募集中
安息敎會의 奉公事業

[illegible]

◇淸凉里安息敎療養院(建築中)

天氣豫報

[illegible]

◇曇後晴

[illegible]

宮崎地方强襲

[illegible]

暴風警報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엇재서大學目藥이世界에第一인目藥일까?

그까닭을맛슴하야드리지요

第一 **大學目藥**原料中에는專賣特許인「홀비오레긴」이配合되여잇습니다。이것은 世界에이는目藥으로는 追隨치못하는것입니다。

第二 그結果、**大學目學**은곳은眼疾에神効잇는治病作用과눈을깨끗이하고아름답게하는美眼作用과、눈에有害한 紫外光線을 防止하는紫外光線防止作用等의作用을一時에나타내는것입니다。이가지藥으로는 作用을兼備하야、眼科藥으로서 理想을實現한目藥은、우리는目藥中에서도、오직**大學目藥**이잇슬뿐입니다。

第三 그리고、**大學目藥**은、압으거나、쓰리지안코、氣分좃케有効한것이가장사랑하는特長입니다。
「氣分좃고 愉快하게 眼疾을 治癒한다」는것이他藥의 追隨不能하는**大學目藥**의特長인同時에、藥質은아무리오래두어도 變質하거나腐敗치안어서、어느때나 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것이、**大學目藥**이世界的으로信用을엇는理由입니다。

第四 更히、**大學目藥**에는 瓶마다、大學洗眼藥이라는 눈을씻는藥이添付해잇습니다。眼疾을速治하랴면、눈을씻고 目藥을넛는것이 조흔것은、누구나 다아는바인데 目藥에洗眼藥까지添付된 親切한目藥은 **大學目藥**外에는 없습니다。1뿐아니라、大學洗眼藥은 世界 인산데ー뿌衛生包裝으로되여잇으므로、누구나**大學目藥**이周到함에는 賞歎치안을이가없습니다。

第五 **大學目藥**에는、十歲以下어린이를爲하야特製한 **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學理와經驗에依하야、어린이눈에 맛도록製劑한**小兒用大學目藥**이世上父母된이들에게 絶大한信用을 맛는것도當然입니다。

第六 最後로、點眼容器와人造鼈甲케ー스에對하야 한마디맛슴하겟습니다。**大學目藥**의容器는新案特許의自働點眼容器입니다。이容器는、1대로自働式의 點眼器이 便利한것으로、上部의고무를손으로누르면 一滴식마음대로目藥이 떠러짐으로、누구나自由로使用되고、또一滴도헤식되지안음으로第一經濟的이요衛生的입니다。이點眼器는、다바지거나、깨지거나、目藥이쏘다질念慮가업슴으로、携帶하기에便利한데、더一層携帶하기 便利하도록 近代的美裝을다하야、發明한것이、人造鼈甲케ー스입니다。人造鼈甲케ー스는、조금도닯지안는、美術工藝의 粹를다한優美高尙하고便利한케ー스로서、藥의케ー스로는勿論、다른케ー스로서도 아직 다시업는 훌륭한것이라고 評判이좃습니다。願컨대、여러분도、每日아침起寢하시거던 잇지마시고、**大學目藥**을 點眼하십시요。그리고外出하실때에도、반드시포케트에넣고 단니시다가、생각나시는대로點眼하십시요。
여러분눈은어느때나아름답고永久하게健康하실것입니다。

朝起後에 大學目藥을點眼하면其爽快한心神·

눈은더욱健康케되고ㅡ眼疾은곳治癒됨ㅡ大學目藥은片時不離할、나의寶貝입니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郞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推奬
醫學博士 山中謙之氏
醫學博士 豐田正進氏

大學目藥은 効力第一로 世界에有所聞한 目藥이 大王이요 1効能이優秀함은、有名한眼科專門의五大醫學博士 가一齊히推奬한것만하야도 分明한데다가、世上사람들이 第一좃은目藥이라、다투어爭先愛用하야、**大學目藥**이 世界目藥中에서 第一信用이잇고第一잘팔리는것으로도 알수잇습니다
이러케 훌륭한目藥이 日本에서 製造發賣되는것은 我國醫學界의 世界的名譽라고하겟습니다

適應症

○和目　○쑥目
○疲勞眼　○赤目
○눈이부심　○상한눈
○妄視症　○삼눈
○結膜炎　○저안증

鼈甲케ー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 五十錢
補充用
特大瓶付 一圓

케ー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徳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製造本舖 參天堂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

逐日發展하는元山工業 年産三百萬圓突破

釀酒、水産製品、紙製業激增 不遠間工業都市化

【원산】 항구도시의 발전은 다른도시와도 특별히 공업발달에 의하여 그발전을 꾀하고잇는것이 원리인데 이제 발전도상에 잇는 원산항(元山港)의 근변의 공업발전상황을 살펴보면 실로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잇다.

재작년도 원산항 공업생산액은 一百八十九萬九千七百七十원이엇든데 작년도 공업생산고는 불과 三百七十一萬六千八百十五원으로 단一년간에 거이 배이상으로 비약적 발전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와갓이 비약적발전을 보게된 사정을 들어보면 양조공장의 확장과증가로 재작년보다 배이상의 생산이 잇은것과 수산제품(水產製品)가공소가 격증하야 그것이 또 배이상의 생산을 보게되고 지금지제품(紙及紙製品)공장의 확장증가로 재작년보다 三배이상생산이잇고 그타도저부 증가상태에 잇어 그와갓이 격증된것이라 한다.

이와갓이 발전하는 원산공업계에 최근부터 공사에 착수한 一천만원의 대화학공장이 완성되면 완전한 공업지대가 된다고하며 더욱이 수력발전이 극히 편리하야 앞으로 가지기업자들의 진출에 공장설치설이 만타는바 불원한 장래에 공업항으로 원산항이 될것이라고 한다.

旱災地全南管內에 棉花大增收豫想

收穫豫想五千五百萬斤

농무과의 금번 피해상황 조사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六七월 변계에 처음보는 대한발로 인하야 각종농작물에 피해가 막대하다고함은 보지에 기보하엿거니와 오즉 면화(棉花)만은 대풍수를 예상하다고한다. 그런데 전남도농무과에서 금번면작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면화경작면적 五만三천七백七十六정 九단보라하며 그수확 예상은 五천五백 六十一만 七천 근이라는데 이것을 작년의 그것에 비하여보면 경작면적은 四부九리증이며 수확예상은 一할二부의 증가라고한다.

朝鮮酒價引上

인천주조조합서

【인천】 인천의 술갑이 올랏다. 인천조선주조조합(朝鮮酒造組合)에서는 지난二十일 총회를개최하고 조선주가인상을 결의하엿다는바 탁주(濁酒)는 매두 종전의 一원八十전을 一원九十전으로 약주(藥酒)는 종전의 四원五十전을 五원으로 인상하게되엇다한다.

大邱嶠南校에 義捐金遝至

【대구】 十四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공헌을 한 대구(大邱)교남학교(嶠南學校)는 그동안 경영난의 비운에 수변하야 거의 폐쇄의 지경에 이르러 잇든것을 현재 교원으로 회생식 교편을 잡아오든 이효상(李孝祥)씨외 변선생의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다시 二十一일에 가치의 교우들과 동회를 열고 장래의 교우에 대한 의연금모집방침을 토의하엿어지 윤철규(尹喆圭)씨를 부회장으로 추천하고 이날에도 먼저 총회당시에 간사장 박용관(朴容觀)씨가 이미 一백원을 거출하엿으면서도 다시 三백원을 내겟다는 언명이 잇어 잇지 안케되어 너도 나도하고 의연금을 냄마듯 들어와서 八백여원에 달하얏다하며 무명씨로부터 二백원이 들어와서 로우총회 감격을 자아내고 잇다 한다.

義捐者氏名과金額 ▲朴容觀三百圓▲朴命圭百五十圓▲朴元吉十圓▲尹喆圭百圓▲秋滋鎬十五圓▲張斗十圓▲鄭七圖二十圓▲崔某五十圓▲李東佑二十圓▲徐某三十圓▲金斗浩十五圓▲張某三十圓▲張某十五圓▲李某十五圓▲合計八百三十圓

道廳前道路鋪裝도 今年度內에實施

最終大田邑議決定 / 읍직원퇴직수당만 一만원

【대전】 오는十월一일부터 부(府)로 승격할 대전읍은 지난二十一일 최종의 대전읍회를 개최하고 읍재산처분등 최종의 회의를 마치엇다는데, 부(府)에 인계될 재산은 四十四만八천五백三十원, 차입재산 미상환분이 四十八만七천一백 三원七十전으로 부족 一八만여원 이라한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으로 대전의 간선도로 수 대전역 도청간 포장공사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엿다 한다. 읍직원 퇴직수당만도 읍장이 五천원, 그외직원은 六천원 합계 一만 一천원이라고 한다.

清津飛行場 着工키로決定

【청진】 오랫동안 문제중에 잇든 청진비행장(淸津飛行場)은 수성평야인 송향으로 결정되어 二十一일부터 나남(羅南) 중천조(中川組)가 공사를착수하다고한다.

儒林稧가先鋒 文盲을退治

一만二천원경비얻어서 雲山啓蒙事業好績

【박천】 평북운산군수 (雲山郡守)임문식(林文植)씨는 취임즉시부터 농촌에잇어서는 무엇보다도 문맹퇴치(文盲退治)가 긴급하다는것을 절감하고 유림계(儒林稧)로 하여금 총경비 一만二천원을 부실케하야 三개년계획으로 서당 개량서당을 설치하고 유수한청년들을 동원케하야 야학(夜學)을설치하고 일반에게 한글과산술을 해득케하엿는데 작년一년간에 성공한수자는 아래와갓다 한다.

面別	夜學數	講師數	生徒數
雲山面	三五	四七	一、〇七九
東新面	二七	三一	八〇四
城面	三四	四五	二九一
委延面	五〇	八六	一、四八一
北鎭面	三一	四〇	一、八一七
合計	一七七	二四九	五、四七二

이밖에 김병선(金秉善)、김정선(金正善)、성원(成元)씨등이 이 발견하지 교묘한 수단으로 인하야 여전 보급시설에 매개하려고 수수중에 다행히 원사서원이 이 발견하고 조사 검거하야 전이선여는 무사하엿다고 한다.

消息

◎林泰一氏(高敞郡內務主任) 去十八日 郡守로 同上
◎金奉昌氏(本社榮州支局長) 內東萊 文殊 天殿院 入院加療中
◎鄭昌淳氏(熙川長老敎會傳道師) 厚昌邑敎會로 轉任人事次 去十九日 本報錦城支局來訪

農村處女賣喫團 警察이打盡

【원산】 촌처녀가 도회를 동경하는 약점을 타서 교묘한 수단으로 유인매게하는 악덕부랑배 三인은 원산서원이 현장에서 체포하엿다. 지난二十一일 정오경 도회를 동경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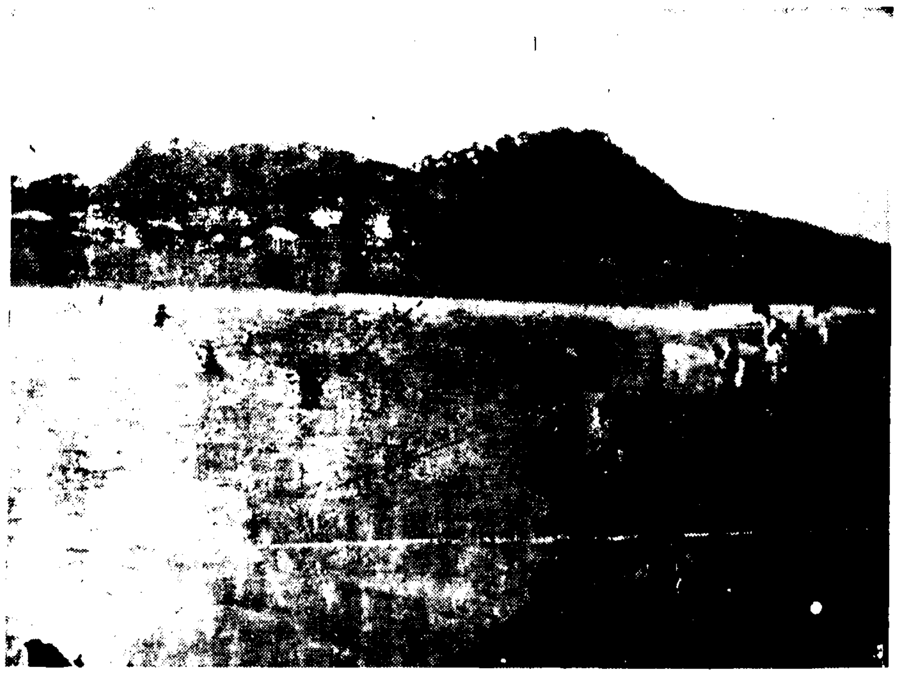
群山署管內酒稅額 勿驚!十八萬圓

작년보다 三만여원이증가 每戶平均三十六圓

【군산】 최근 군산세무서(群山稅務署)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년도 관내四十六개소 주조장(酒造場)에서 생산된 수량은 二만二천五백七十二석이고 그세액이 十七만八천 九백九十二원이라는 놀라운수자를 내이고잇다는데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五一만六천 一백三十二원으로 따지면 매호당(每戶當) 평균 三十六원이라 고 한다. 또 이것을 작년도에 비하면 생산량(生產量)으로 二천九백九석 세액으로 三만二천九백三十七원의 격증을 보이고 잇다는바 이것으로 보아도 군산지방주민들의 사용하는 술이 해마다 늘어가는것이 판명되엇다. 이것은 농촌경제가 날로 피폐하여가는 이때에 안타가운 현상(現象)을 보여주고잇다 한다.

高原公普校 校舍를新築

【고원】 고원공보교(高原公普校)부형회에서는 동교학급을 증가코저 연마전부터 교사를 증축하고저 그간 계획중이든바 공사비 五、六천원에 달하므로 최근 인가수속도 끝나서 수일전 신교사증축(新校舍增築)공사를 착수하엿다한다. 어리하야 오는 二十七일 신축하는 교사는 四학급을 더수용할수잇는것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여내의 입학난은 완화될것이라고 한다.



密陽名物 銀魚잡이

오마라

九月二十四日(火)

▼六時 合唱 京城保育學校合唱隊 指揮洪蘭坡
▼午後六時二十五分 趣味講話
▼七時三十分 童謠歌外(1)리별가(2)노들강변(3)사발가(4)닐리리야(5)월양아리랑(6)어랑타령 林明月 細笛高載德 伽倻琴鄭成
▼八時 流行歌(레코ー드演奏)
▼八時十分 (東)獨唱 (一)피에졋어우시는 설운당고 (二)富士山을넘에연 神에 西藏 벗과함께 바다 가갈때에게 푸른門衣(三)歌劇 「五月의夜」에서 벗듯이노래
▼八時四十五分 漫談 여섯개 金永煥
▼九時五分 赤化歌外 金泰運 崔蘭香

九月廿五日(水曜)

▼午後六時五分(東) 管絃樂(一)武島(二)燒草工場의女職工(三)집시의사랑(四)아침노래(五)피라리카(六)예전學生 클로나오케스트라
▼八時三十分(大) 管絃樂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에마누엘메텔
▼九時 浪曲古談 龜朝大鑑(二) 申明會

第一放送 (二十五日)

▲六時卅分(東)英語講座(六)▲七時一分(東)朝の修養▲九時(東)家庭メモ▲十時卅分(東)婦人講座▲二時家庭講座母親と兒童▲六時唱歌とピアノ(京城師範公立小學校生徒)▲六時二十五分(東)コドモの新聞▲六時二十五分(東)基礎英語講座(八)▲六時五十五分(東)カレントトピックス▲七時三十分(大)講演▲八時二十分(仙)新曲の略譜▲八時四十分俗曲▲八時五十五分(東)浪花節

九月廿六日(木)

▼三時十五分 兒童巡禮講演(一) 李炳南
▼四時 뉴스
▼四時三十分 아式蹴球試合實況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六時 九月에난偉人이야기 「별손」 辛 喜 祚
▼六時二十五分 經典講義 李明世
▼七時 뉴스 天氣豫報 經濟市況
▼七時三十分 農村講話(二)洪淳
▼八時 流行歌(一)新망이타령(二)풀지마세요(三)금연오나(四)日暮江邊(五)嘆息이가씨(六)도조와요 金福姬 DK管絃團
▼八時三十分 樂方曲(一)수가더라(二)사수、三신아리(四)大거리 申明會
▼九時 浪曲古談 龜朝大鑑(二)
▼午後四時五分 民謠와童謠劇(一)나물캐리(二)鬼人民謠(三)愛國民謠(四)農西平民謠(五)童謠劇
▼六時四十五分三時十五分 兒童劇 金 昌 伯
▼六時 童話劇(全中國劇)孝女沈淸 出 演 青邱兒童劇研究會 趙 南 善
▼六時二十五分 趣味講座(第一日) 가을과古蹟巡禮
▼七時三十分 農村講話(二)奏筝 金 婦 珏
▼八時 童謠歌外(一)時調(二)지름(三)평수심가(四)여근수심가(五)驚駕鼓
▼八時三十分(大) 管絃樂 大阪 放送 交響樂團 指揮에마누엘메텔트
▼九時 浪曲古談 龜朝大鑑(二) 申明會

長篇小說豫告

密林

金末峯女史作 李靑田畫伯畫

金末峯女史

李靑田畫伯

紹介말

백남림교중(白南壽敎中)씨의 여작 「미수(眉愁)」는 독자여러분의 열광서 애독을 받고서 아깝게 끝낫습니다. 다음에는 여류문인(女流文人) 김말봉(金末峯)여사의 장편창작 「밀림(密林)」을 오는二十六일부터 여기 조간三면에 연재하겟습니다. 여사는 일즉이 경도동지사 여자전문학교영문학과(京都同志社女子專門學校英文學科)를 마치고 돌아와 중외일보(中外日報)의 기자로 활동하다가 창작에 뜻을두고 숨은지 五년만에 이제 이작품을 가지고 문단에 「데뷰-」하려하는것입니다. 여사의 단편 「망명녀(亡命女)」、「고행(苦行)」등을 읽은이는 누구나 그 솜씨의 뛰어남을 인정하려니와 이번 장편은 여사의 재분으로 四면동안이나 구상한것이라 하느니만치 단연 우리문단의 레벨을 높일만한 혜성(彗星)적 작품입니다. 독자여러분은 기대를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삽화는 새로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화백이 그리기로 되엇습니다.

作者의말

밀림(密林)속에는 못는즘생 나는새、기는벌레 그리고 풀 풀나무 가지가지의 생명이 약동하고잇습니다. 살고 죽고 싸우고 사랑하고 … 저는 인간사회를 한개 「밀림」이라고 생각해보앗습니다. 그리하여 저의좁은 시야(視野)에 비처진 조선의 여러동을 한조각씩 모와 여러분앞에 내여놋습니다. 소설 밀림(密林)을 읽어주시는분이 게시다면 그러고 이것을단지 신문소설이란 흥미본위에만 그치지 말고 한거름 더 나가서 좀더 냉정히 생각하시고 비판하시어 자사의 부족을 집은 이도(意圖)가 어데잇는가를 오직 하야주시는분이 게시다면 만족으로 생각하겟습니다. 불행히 독자가운데서 한분의 공명자(共鳴者)가 업다하더래도 행여 이글이 十년후혹은 二十년후까지 남아잇게되어 그때 누가 읽어보고 그리고 작자를 향하여 충심으로 대답하여주시는 분이 잇다면 저는 「밀림」을 써내인 사명을 다하엿다고 생각하겟습니다.

今月廿六日朝刊부터揭載

먼동이틀때 (五〇)

作 李無影 畫 鄭玄雄

淑子 (3)

극장으로 들어가서는 얼마를 두리번 거리던 숙자는、여시 뒤쪽에、한자리를 잡더니、일도의 팔을 끌어다 앉치고 저도 사붓이 그옆에 나려앉는다. 거기는 바로 아래층으로 나려가는 길목이엇다.

「너무 사까우면 선생님 실혀시지요?」

숙자는 계속말처럼、건바우에 다 호흔호흔한 입김을 뿜어주며 속사긴다.

일도는 고개만 끄덕이엇다.

「그러구 앞에 앉으면 휴식시간에 혹 뒤에 아는사람이 잇어도……」

이것은 숙자답지 안혼소린거!하고 속으로、일도는 생각하면서도

「그러치요」

어러케 대답지 안흘수없엇다.

「이 천몽 벗어수아……」

숙자는 이러케 정혼자 간나우 오스운 생각 못는것이엇으나、살본 인도야 그런처지를 생각어 없엇다. 숙자와 애 오늘 갑시이 속담을 때어서 자기를 끌어낸는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엇다. 그러기는 이럿타한 진리를 사랑에 가운데서 또흔 그런것을 웃는 장사가 하다는 목숨을 히생시키어 …… 이런다. 그리하여 「권태」의 사위한 지위에 옳긴다나 목숨을 받히는것이다.

이러한 스토리속에도 진리는잇는것이다. 그러치마는……。」

이런 생각에 잠겨잇자니까 숙자가 「그만 가시잔으시겟어요?」 하고 속사긴다。가나 안가나 조흔터지만、어머니한가 무엇인가하는 영화를 보려고 온다는 숙자가 보면섯도 영사중인데 감사이가자는것이 오수워서 왜게어히처나 보려니까 머리가 아파서요!」 하고 양미간을 짱긋하며 대답하는 숙자는 말소리라。「그러면 가십다。」 하고 일도도 벌덕 일어낫다.

도 봉랏고 남촌(南村)이기는 하지마는 일도의 성격은 생각하면서 사람만치 모이는 극장에 드물러 들어왓는지도 물론 모른다. 큰자뜻대로 일도는 숙자에게 대하야서는 백지(白紙)엿다.

아직 시간이 남은터이니 아즉 시반까지만 잇엇다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숙자하는대로 내버려두엇다.

몇시부터 시작햇는지、세조목중에서 「조국을구하다」는 끝이나고、룸제인 시대극 「흑건(黑巾)의 말기(末期)」라는 영화의 감부림장면이 엄마동안 계속되엇다.

눈이 부신 장검이 번쩍 번쩍할때마다 말든 풀대처럼 「인간」이 못질 린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칼이 번개불과도 갓앗다.

그럴때마다 살과터만 나다난인간들이 누구의 명예와 누구의 행복을 위하야서인지、나대는 쓰며나자빠진다. 동편동편 하고 아신에서 자미잇다는듯이 장난만 마추어준다.

「진리(眞理)란 조금도 궁벽한데 숨처잇는것이 아니다。」 하고 인도는 딴생각을 하고 잇엇다.

「진리란、가는곳에마다 허주터잇는것이다。이러것 평범한 영화속에도 진리는 잇다。저 영화상제작자 사람은 판것을 보이려고 하엿이 게지만 여기에도 진리가 잇다。한인간이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야、구국보민(救國保民)이라는 미명아래 백성들을 모아노코 무사당이나 부수비사니 꾸미어가지고는 결국 제배속을랍

「고、막하 난간곳 잡고 숙자는 어무오데서도 의사감이 나려가며 니 잠간 서는듯이 하나가 다시아래층으로 부하 정정대로 나려서며。

「인도씨 어서 오서요!」 하고、고개만 ... 일인도 재속하얏다。아무런도 모르는 인도는 이번에 가셔서 김선생이라 부르지 안코 인도라나! 하고 속으로는 거예생각은하지만 그러면이로 아니라 서울리게 들리엇다。

그러나 일도인지라 면져 숙자도 나려와 버리엇다。

가 조용하고 서는데 하는데서 다 덧자리 떨어진 옆에 앉엇던 한 여성이。

「애 숙정아。네동생 목소리 아니냐?」

하고 영구리를 꼭 찌르는것도 —봉본 압해이 엇엇다。그렇게 숙자의 목소리라는것을 모를 정도 아니오 일도라는 이름에 각 작 놀란 숙정이기는 했지마는。

「아니다 얘!」

하고 곤세게 부인하는것이엇다.

謹告 依願解職 晉州分局長劉載均 廢止 晉州分局을 九月一日附부터 廢止하엿삽기 玆에 謹告하나이다。 昭和十年九月二十一日 東亞日報社 京東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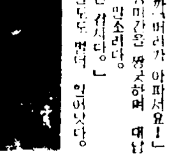
農林省御推薦 農工兼用 가도다 發動機 型錄進呈 合名會社 留我商店 京城府本町 電話本局二一六八番

保證付 高級 아ート 萬年筆 愛用者本位の 米澤萬正堂

恩給 讓渡 京城府 郵商會

至急社員採用 愛國生命保險朝鮮支部

東亞藥房 태극성광목


頭痛 齒痛 頭痛에 效散 神經痛에도大效 本舖

一진노 (齒痛)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10月新譜 마지막선물 첫사랑 시에론레코ー드

王子製紙株式會社製品 紙業界의大革命 專賣特許第一〇六九二九號 原紙特約販賣希望에應함 令筆用 雜記紙 記帳更 三大特長 製品種目 取引方法 試驗用御註文 地方專賣店募集 原紙發賣元 王子金筆紙製造株式會社 製品發賣元 昭和化學紙營業部

男子 早漏防止 理想的防毒產制具 三寶商會

東亞日報寬化洞購讀請求所

京城 金銀 地金 分析 賣買 杉山商會 高價 合名會社 杉山商會

安全한債券 施政廿五周年記念으로 貯蓄에勸業債券을推奬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公債賣買取扱